

• 에베소서 4:22-24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 받은 ‘새 사람’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옛 사람’을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옛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홀로 사는 사람이고, 새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God's way)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의 목적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허망한 욕정의 길, 썩어 없어질 길은 결국 죽음의 길입니다. 에녹은 ‘므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므두셀라’란 ‘창 던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부족을 보호하기 위해 창을 들고 불침번을 서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가 죽으면 부족 전체가 죽는다는 의미에서 ‘그의 죽음 뒤에 ‘심판’이 온다’로도 읽혔습니다. 에녹은 아들을 낳은 후 ‘심판’에 관해 생각하게 되었고, 심판을 생각하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심판과 죽음 앞에서 가장 진지하고 신중해지는 법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창 5:21-24). 동행은 일치입니다. 내 뜻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 가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던 처음 모습을 회복해 갑니다. 참다운 나, 나의 제자리를 찾아야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복, ‘원복’(Original Blessing)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합니다(엡 4:13). ‘새 사람’을 입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엡 4:13, 24).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의와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생명의 길로 걸으려면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 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요 14:6)?
- ② 하나님과 일치하며, 닮아 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까?